

일주문

제805주기 보조국사 종재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14~15일 제805주기 보조국사 종재와 보살계 수계산람을 진행한다. (061) 755-0107

난치병어린이들이 3천배 정진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5월 2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가 돕기 3천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055)382-7182

동산스님 열반50주기 행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5월 3일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열반 50주기 문도교학대회와 11일 추모다례제를 개최한다. (051)508-3122

해인만다라 그림대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5월 23일 오전 10시 해인사 일원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그림대회 '해인만다라'를 개최한다. (055)934-9004

형형색색 달구벌 관동놀이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5월 2~5일 대구 신천 일대에서 형형색색 달구벌 관동놀이를 진행한다. (053) 982-0101

제3회 어린이연동꾸미기 경연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5월 2일까지 '제3회 어린이 연동꾸미기 경연대회' 응모작을 모집한다. 수상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02)3218-4817

관음사 괘불 점안법회
청주 관음사 주지 함현 스님은 5월 10일 오전 10시 청주 관음사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을 법사로 괘불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043)256-6254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행사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은 5월 7일 복지관 관내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당당한 신노인 바운스' 행사를 개최한다.

BBS불교방송 25주년 특별방송
이재원 BBS불교방송 사장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창사25주년 특별생방송을 마련한다.

제7회 대전불교합창제
이혜경 대전불교합창단연합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30일 오후 6시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제7회 대전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7분 집중하면 긍정 에너지 분출돼”

‘생활 선’ 대중화 위해 ‘부처님마을’ 개원한 보현 스님

“차분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긍정 에너지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전환하려면 업에 의해 고착화된 습관적 에너지를 바꿔야 가능해집니다.”

〈생활 선(禪) 안내서〉를 펴낸 유명가수 출신 보현 스님이 최근 서울 평창동에 힐링 명상선 수행도량 ‘부처님마을’을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처님마을’은 매주 화·토·일요일 오전 10시마다 ‘행복한 생활선, 성공선’을 주제로 한 명상법회를 연다. 보현 스님은 “경쟁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다. 이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 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생활 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도심 속에 도량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생활선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시간 수행하는 것보다 하루 7분 정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7분 수행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안정된 상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보현 스님은 법회나 개인 상담을 통해 불자들이 7분 명상을 비롯해 마음공부와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



매주 화요일 생활선 명상법회 열어 <망공 스님과 애벌레 선> 퍼내기도 1:1 개인 맞춤 생활선도 집중 지도

현 스님은 자신의 수행을 ‘애벌레 선’이라고 명명했다. 지리산서 수행할 때 눈앞에서 사뿐히 날아오르던 흰나비를 보고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었다고 한다. 배추벌레조차 나비가 되어 대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우리 중생들도 번데기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마음공부를 통해 훨훨 날아오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마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선 무엇부터 잘못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내 본래의 진면목을 보려면 내가 옳다는 생각부터 없애야 하지요. 자기만 옳다고

집착하는 만큼 아픔과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법입니다. ‘부처님마을’서 가르치는 애벌레선은 참나를 올바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생활인이 해야 합니다.”

보현 스님의 이런 마음수행은 과거 자신의 독특한 이력과는 무관치 않다. 스님은 “인기 절정이었던 토티타 시절에도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여고생 시절 친구와 서울 남산에 산책을 갔다 영화진흥공사 기획자 눈에 띄어 ‘이경미’란 이름으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1984년 가요대상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인기 절정이던 1987년 김혜수·김용우 주연의 KBS 인기드라마 ‘사모곡’ 주제가를 부른 뒤 출연이 사라졌다. 선원(禪院)인 수덕사 경선암에서 법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현스님은 줄곧 선 공부와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

스님은 좀 더 대중적으로 들어가 생활선을 통해 마음치유하는 큰 원을 세웠다. “좋은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씩 모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 집중해 보세요. 좋은 일이 계속될 때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참된 마음을 찾을 때 부처님 가르침도 따라 오듯이 자기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능력이 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모두 떨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마을 (02)379-2010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원주 치악산 성문사, 일주문 낙성 법회

상월대조사 오도송 새긴 성문범어벽 제작도



천태종 원주 성문사가 사찰의 관문인 일주문을 낙성했다. 또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오도송, 2대 중정 대충대종사와 현 도음 종정예하의 법어, 천태지자대사 교설과 화엄경을 새긴 성문범어벽도 완공, 공개했다. 천태종 원주 성문사(주지 도원 스님)는 4

월 22일 신축 일주문 앞서 낙성식을 봉행했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도음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총광 스님, 김기선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만희 원주부시장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 일주문 낙성을 축하했다. 이날 도음 종정예하는 “한량없는 신룡의

문이 세워졌으니 일체중생 포섭하는 자비의 문이요, 무량한 공덕을 일으키는 지혜의 문이며 생사윤회 벗어나는 해탈의 문이구나. 범부와 성인이 함께 드나드는 문이라 허망한 번별을 버리고 또 버려라. 거룩한 빛은 신령하고 신령하여 본래부터 나고 죽음이 없구나”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에 앞서 주지 도원 스님은 불사를 원만히 마치는 데 도움을 준 김만국 도편수, 단청 불사를 맡은 한문수 씨, 각자를 한 이채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 후 개회사에서 “성문사는 넓은 경내에 큰 법당이 건립되었지만 도로와 인접한 출입구에 성문의 경계를 알리는 일주문이 없음을 아쉬워하던 차에 종정예하의 재가를 얻어 불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일주문 건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심 하나로 이 불사를 이루도록 노력해주신 신도회장을 비롯한 간부님들, 성문사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문과 성문범어벽을 갖춘 성문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구법 수행하는 많은 불자 법손들이 찾아오는 영서제일의 도량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대광사, 전통명상수련센터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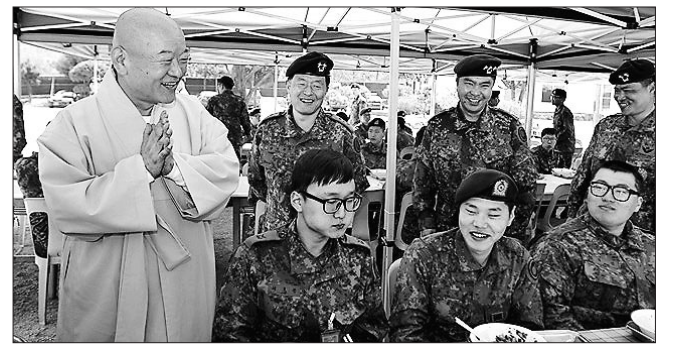
착공 4년만에, 연건평 9300㎡ 4층 규모



분당 대광사(주지 월도 스님)는 4월 21일 전통명상수련센터 및 지관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삼존불 및 상월원각조사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천태종 도음 종정예하를 비롯해 운덕 대종사, 총무원장 총광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BTN불교TV 이사장 성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스님,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종민 문체부 총무실장, 이재명 성남시장, 전하진·강석훈 국회의원, 박권중 성남시의회장 등 정관계 인사, 대광사 신도 및 불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성법요식에서는 대광사신도회가 불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정 스님의 표창패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1300명에 자장면 공양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4월 10일 제26사단 포병여단(여단장 대령 안종영)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자장면 공양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병여단 자장면 공양은 총 1300명 분이 제공됐다. 행사에는 26사단장, 6포병여단장, 26사단 포병여단장 및 대대장들과 6군단 예하 법사님들이 동참했다. 노덕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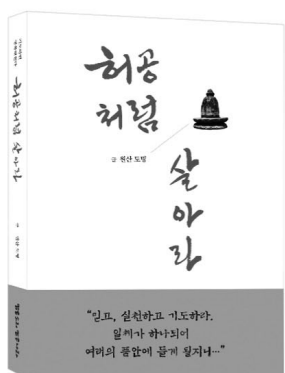
법왕사 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4월 20일 강주 일진 스님을 법사로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을 개최했다. 법왕사는 7월 28일까지 100일간 법사님들을 초대해 설법회를 갖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산 도명스님 법문집 『허공처럼 살아가』 출판기념법회

일시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4시
장소 국제신문 4층 대연회장(대강당)
문의 통도사 종무소 055-382-7182



원산스님이 지게 정신에 바탕하여 선禪과 敎敎를 수행하고 주지 소임을 살면서 체험한 산 법문 『허공처럼 살아가』 출간

글 원산 도명 | 펴낸곳 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 300쪽 | 15,000원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태에서 난 생명도 있고, 알에서 난 생명도 있습니다. 또 물에서 난 생명도 있고, 태의 변화로 난 생명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 인간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자 행운인 것입니다. -본문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문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문화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